



기억과전망

Memory & Vision

2013년 겨울호 (통권 29호)

지난 1997년 경제위기 당시 한국인들의 집합적 심성을 지탱해온 하나의 축이 무너졌다. 1960년대 이래 한 세대 이상 흔들림 없이 이어져 온 믿음, 즉 한국 경제는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어도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그 믿음이 깨져나갔다. 경제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국인들의 생활세계는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2008년,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하에서 한국인의 집합적 심성을 지탱해온 또 하나의 축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발전’해나간다는 믿음에 대한 의심이었다. 1980년 이후 한국인들이 경험한 ‘장기 민주화’는 독특한 집합적 심성을 형성시켰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화는 불가역적인 것이며,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주주의의 후퇴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에 반해서 무리한 정책을 고집할 때조차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약속과 신뢰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대에 가졌던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고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로부터 1년이 가까워지는 현재, 이런 기

대는 충족되고 있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논해야 한다. 최소기준의 하나는 실질적 의미의 대통령선거의 존재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의 공정성 여부이다. 한국현대사는 이 최소기준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두운 밤 또는 추운 겨울’이라는 은유가 등장하고 민주화운동의 시대가 열린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중간 기준은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정당의 효율적 대의성이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치 및 정당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된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론은 이를 둘러싼 논쟁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지난 1년간 한국 정치의 쟁점은 한국의 경제나 복지, 또는 삶의 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정보기구들의 개입문제였다. 이 때문에 우리는 수십 년 전의 북풍과 유사한 ‘중북’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미중관계의 변화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신냉전 사회가 도래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번 호는 두 개의 특집을 구성하고, 그 밖의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을 실게 되었다. 특집 I은 1970년대, 1980년대 학생운동연구이다. 신동호, 유경순, 고원 등 세 분이 기고한 글로 구성하였다. 이 논문들은 모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진해온 공동연구의 성과들이다. 특집 II는 지난 2년간 본 학술지가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민주화운동단체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로, 김상숙, 이창언, 조철민 등 세 분이 기고해주었다.

기획논문으로는 이른바 ‘소수자’들에 대한 연구들로, 이병하의 외국인 노동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이정은의 조선족 동포들의 민주주의 경험과 실천, 주윤정의 대만 장애인 인권운동과 복지권에 관한 연구들로 구성하였다.

그 밖에 이순진의 영화 <오발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이영미의

진보적 예술운동에 대한 개념사, 박상필의 시민사회의 연구방법론, 그리고 최태욱의 조정시장경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상호보완성에 관한 연구 등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기억과 전망』은 2년 전에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는 학술지가 되었고, 지난 몇 년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운영이 체계화되고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기억과 전망』에 투고하는 논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관심과 성원의 증가는 본 학술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번 호는 예전에 비해 더 많은 논문들을 신게 되었다. 연구소의 입장에서는 투고한 논문들의 심사업무와 발간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에 『기억과 전망』이 반년간지가 아닌 연 3회 또는 4회 출간하는 학술지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호의 편집과 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그렇지만, 우리의 학술지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XXXX~~

2013년 11월 30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정근식 씀